

Exercise 2. "인간 계산"

인간과 컴퓨터의 팀워크라 할 수 있는 인간 계산은 각자 잘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초중고, 대학교를 거치며 우리는 많은 조별 활동을 경험하지만 운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 항상 모두가 참여하는 조별 활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무임승차자는 계속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특성상 각 개인의 능력을 살려 조를 짜고 과제 자체가 그렇게 각 구성원의 능력을 끌어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무임승차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나에게 너무 어려워서 안 한다'기 보다는 대체로 '쉬운 일이니까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이기에 아예 안하거나 마지못해 대충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 계산의 문제들은 구성원인 인간, 컴퓨터가 각각 혼자 할 때는 어려운 문제(사람이 했을 때에는 시간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걸린다든가, 컴퓨터 홀로 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다거나 하는 문제)이기에 인간과 컴퓨터의 효과적인 조별활동, 팀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인간 계산을 이용하여 순우리말 번역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수업시간에 배운 것처럼 컴퓨터 언어와 달리 인간의 언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어를 다른 언어의 단어로 대치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한 번역을 할 수 없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문 용어의 순우리말 번역은 어찌 보면 단순 번역보다도 더 필요한 작업이다. 한자로 이루어진, 낱어보다는 단어의 뜻만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들이 꽤 많다. 통계학 교과서만 보더라도 불편추정량이니 점근상대효율성이니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unbiased estimator, asymptotic relative efficiency를 각 단어마다 그대로 한자어로 번역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본에서 번역한 한자어 그대로를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다. 쓰기에는 짧고 편할지 모르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가능할 수 없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지식에 대한 일반 한국인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 사용해온 것이 있기에 누구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우리말 번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Capcha와 Duolingo의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면 용어의 순우리말 번역을 해 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듀오링고와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용어의 설명을 한글로 번역한다. 번역된 설명에서 중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컴퓨터가 검색하여 빈도순으로 나열한 뒤 참고할 수 있도록 단어 위에 커서를 올리면 그 단어 아래에 표시되도록 하고 영어로 된 원용어와 번역된 설명을 병기한다. 이 정도까지는 컴퓨터에게 맡겨놓을 수 있다. 이제 Capcha와 같이 용어와 설명을 보고 사용자에게 적당한 순우리말 용어로 바꾸도록 하고 다른 사용자가 같은 문제를 접했을 때 사용자들이 제시한 답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형식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수집된 많은 답안들을 종합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단어를 순우리말 용어로 사용하고 이 용어를 다시 다른 용어의 설명 번역에 이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Duolingo의 경우와 같이 자발적으로 문제 풀이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전문 용어의 우리말 번역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설명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야의 지식이 있는 편이 유리할 것 같기에 전문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Duolingo와 같은 앱을 고안할 수 있다면 용어의 우리말화가 마냥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